

‘이순신의 출정’ 여수거북선축제 준비 돌입

내달 3-6일 이순신광장·선소 일원...장소 이원화 시도 조선 수군 출정 퍼레이드·무예 시범 등 볼거리 ‘풍성’

여수시가 독창적인 호국문화 퍼레이드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제58회 여수거북선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5월3일부터 6일까지 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와 공동 주최하고 여수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8회 여수거북선축제’는 ‘이순신의 결심, 그리고 출정’을 주제로 이순신광장과 선소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전라좌수영의 호국문화를 재현하고, 자주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축제를 통해 주민 참여도를 높여 화합하는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기여할 예정이다.

축제는 43년 전 전라좌수사 총무공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정벌하기 위해

전라좌수영에서 결심하고 첫 출정한 역사적 사건을 각종 작품들과 함께 조선 수군 출정 퍼레이드 형식으로 재현한다.

개막식 무대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진해루 군사회의’ 모습을 배우들이 연극으로 펼친다.

이 밖에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관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이 준비됐다.

특히 올해 축제는 지난해와 달리 축제 장소를 다변화하는 등 새로운 시도에 도전한다.

시는 주 행사장을 이순신광장과 선소 유적지, 여수·여천 지역으로 이원화해 특색 있게 운영하며, 관객이 함께하는 EDM 고고댄스 페스티벌, 해군 군악



여수시가 오는 5월3일부터 6일까지 이순신광장과 선소 일원에서 ‘제58회 여수거북선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2022년 이순신광장에서 진행된 여수거북선축제 통제영길놀이 모습.

대와 의장대 시연, 전라좌수영 수군 무예 시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했다. 전시·체험 행사로는 통제영길놀이

작품 전시, 전라좌수영 모형 등의 전시와 포토존, 조랑말 타기, 이순신 갑옷 및 구군복 입기, 활쏘기, 병장기 체험, 신호

연만들기, 이순신명인 명시·탁본 등 다채로운 체험 등이 마련됐으며, 해양경찰 합동 공개 행사로 방문객들에게 새

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축제장에는 향토음식마켓, 푸드트럭 형태의 음식마켓이 들어서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우수 지역의 특산물 판매 등으로 구성된 부대행사와 여수거북선축제는 가족 단위 관람객은 물론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올해 축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친화형 축제로서 가족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박정명 여수거북선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역사적 재현을 넘어서 현대적 감성과 전통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기획했다”며 “축제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이 이순신 장군과 무명 수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며, 역사와 문화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우주강국 실현’ 고흥군, 글로벌 벤치마킹 나서

佛 국립우주연구센터 방문 글로벌 협업체계 구축

고흥군이 대한민국 우주강국 실현과 미래 우주 허브도시 건설을 위해 우주산업의 선두 주자인 프랑스를 방문해 글로벌 벤치마킹에 나섰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벤치마킹은 프랑스 우주산업의 현주소와 산업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2031년까지 고흥군에 1조6천억원이 투자되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방향 모색과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콘텐츠를 구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벤치마킹단은 이번 일주일 동안 에어로스코피아, CNES 툴루즈센터, 시티오브스페이스, 스테이션-F 등을 차례로 방문해 세계적인 우주산업 선진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사진>

벤치마킹단은 먼저 툴루즈 에어로스코피아와 CNES 툴루즈센터를 방문해 우주항공 전시·체험시설 시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는 유럽우



주국(ESA)의 핵심으로 프랑스 우주정책 계획 및 산업화를 전담하는 등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연구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며 남미 기아나(프랑스령)에 발사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CNES의 Jean-Claude Souyris 부국장과 Anne Thieser 국제교류 담당관이 면담에 참석해, 프랑스 우주산업 성장에 충주적인 역할을 하는 CNES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우주산업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며 고흥군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정립했다.

특히 면담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

회 및 주프랑스 대사관 관계자가 함께 했으며, 고흥군과 CNES 간 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글로벌 협업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툴루즈의 집적화된 우주항공 산업과 민관협력, 인력수급 등을 직접 현장에서 접하면서 고흥이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는데 좋은 모델이 됐다”며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와 연계한 우주테마파크를 완성시켜 고흥군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우주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고흥=최봉환 기자



장흥군,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줄이어

정남진 마라톤·레슬링 대회 개최

장흥군은 8일 “4월 전국 단위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연달아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4일 탐진강변과 장흥담 일원에서 ‘제18회 통일기원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를 연다. 전국에서 2천여명의 마라토너가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하프, 10km, 5km 종목에서 선수들이 역량을 겨룬다. <사진>

아름다운 탐진강과 장흥담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평화통일의 염원을 모으고 장흥군의 자연 자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평양 아리랑 예술단 공연, 자전거가

이당, 한반도기 행진, 통일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함께 준비했다. 오는 24일에서 30일까지는 ‘제2회 해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가 열린다.

전국의 레슬링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선보이는 이번 대회는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대회는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부문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그레고로만형 및 자유형 경기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1천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장흥의 스포츠 문화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흥=노형록 기자

순천시, 1박 2일 ‘촌캉스 투어’ 운행

순천시는 8일 “시티투어 기획투어로 시골마을에서 즐기는 1박2일 ‘촌캉스 투어’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촌캉스 투어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1일, 5월4일부터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5회 운영된다.

이번 촌캉스 코스인 개령이 마을은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마을로 숙박, 체험, 음식 등 모든 자원을 갖춘 순천의 대표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순천시의 대표 특산물인 고들빼기와 흥가를 대표 관광자원으로 갖추고 있다.

개령이 마을의 고들빼기를 활용한 고들빼기 김치 담그기, 고들빼기 자연발상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황도방·편백방 등에서 숙면을 위해 ‘찜’ 시골에서 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롭고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농촌 체험뿐만 아니라 순천의 주요 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은 물론, 개방정원인 낙안이씨고택, 화포해변 등 순천의 구석구석을 가볼 수 있는 코스로 마련했다.

한편, 순천시티투어 이용요금, 운행코스 등 상세 내용과 온라인예약은 순천시바로예약에서 가능하다. /순천=정기 기자

광양경제청,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진행

경도 진입도로 개설공사·황금산단 현장 실시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3일 동안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이번 결산검사위원회는 조합회의에서 선임한 조합위원인 임형석 도의원, 강대선 전직 공무원, 양효석 공인회계사 등 총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등 예산이 목적에 맞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등을 검사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 사업 구역인 경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장과 황금산단 현장 방문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

진 진척도·문제점들을 점검했다. 또 현장 직원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임형석 결산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결산검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결산검사위원들과 직원들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담양군, 오는 30일까지 접수

담양군은 8일 “오는 30일까지 2024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를 통해 지난해 지역 임업인 105명에게 약 3억원이 지급됐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임업 종사 기준 완화,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등 지난해와 주요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품목 변경, 면적 추가 등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후 소득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11월 중 임

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연중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담양군 산림정원과 읍·면사무소 산업계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자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병노 군수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4월 한 달인 만큼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화순군, 2024년 다육가드닝 전국 대회

19-28일 전시...반려식물 체험·판매

화순군은 8일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열리는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행사장에서 ‘2024년 다육가드닝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에서 주최·주관하고 화순다육연합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수많은 다육 매니아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1차 서류심사에서 40팀을 선발했으며, 4월19일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가드닝 테이블(가로 1.5mx세로 0.9m)에 다육 매니아들이 직접



키워 출품한 작품을 전시한다. 다육의 ▲아름다운 수형 및 건강한 컬러 ▲화분과의 어울림 ▲인테리어 소품 활용 ▲감각적 표현을 통한 나만의 작품 연출 등으로 몸과 마음에 얼마만큼의 힐링을 제공할 수 있는 자가 심사 평가의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올해 대회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와 연계해 반려식물 다육을 널리 알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19일부터 28일까지 관람객들의 ▲산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으로 반려식물 다육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를 마련해 운영·판매를 진행한다.

특히 화순군 지리적표시농산물 ‘직약’으로 만든 차량용 향주머니를 다육 2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2024년 다육가드닝 전국대회를 통해 관람객들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다육이가 많은 이들의 반려식물로 자리 잡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